

與 영남 초선의원, 감산 페널티에도 중진 이기기 어려워

254개 지역구 중 193개 공천 마무리
영남 현역의원 56명 중 33명 본선행
현역의원, 단수·우선추천 차출도
조용한 공천?... 예비후보자 반발 속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를 확정해가는 가운데, '뒷밭' 영남에서는 중진의원들이 다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현역 교체율이 낮아서인지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3일 현재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중 193개(75.9%)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경선을 하거나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짓지 못한 곳이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구 현역의원 56명 중 33명(58.9%)이 단수·우선추천, 경선 승리를 통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1명은 경선이 예정됐거나 공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현역의원 25명 중 52%(13명)가, 울산 및 부산경남(PK) 지역에선 현역의원 31명 중 64.5%(20명)가 공천을 받았다. TK 현역의원 중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4명, PK지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는 6명이다.

또 초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페널티 15%까지 적용했음에도 중진을 상대하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공천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선에서 패배한 영남 지역구 현역의원 6명이 모두 초선의원이다. 반면 3선 이상 영남 중진 16명 중 11명은 공천이 확정됐고, 5선 김영선 의원만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처럼 현역 교체율이 낮아보니 국민

의힘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무음공천'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현역의원을 단수추천(단수공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 형식으로 차출하면서 이 같은 반발이 생겨난 경우가 많다.

울산 남구갑의 경우 현역인 이체의 의원이 자신이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상황에 따라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무소속 출마의 여

지를 남겨 줬다. 울산 남구갑은 아직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곳이다.

조해진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경남 김해을도 기존 당협위원장 및 예비후보의 반발이 극심한 지역이다. 공천 반발로 인해 조 의원은 지역에서 하려던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도 했다.

또 김성우 전 김해를 당협위원장 등 5명의 예비후보들은 공관위가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인 추대 후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들은 지난달 24일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현역의원이 단수추천된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진주을도 단수추천 기준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있었고, 이날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진해는 이 의원의 후배인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우선추천 후보자로 선정되자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북 역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단수추천을 받아, 김장주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김경원 예비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경기 고양정의 경우 공관위가

김현아 전 의원을 단수추천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김용태 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김용태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였다.

이에 김현아 전 의원은 즉각 지도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김현아를 빼놓고 일산에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추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번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도 예비후보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 부의장의 입당 소식이 알려지며, 그가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기남 국민의힘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후보에게 전략 공천이라는 수를 쓴다면 항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범야권 비례대표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창당대회서 당명 채택건 등 처리
윤영덕·백승아 2인체제로 운영
"尹 정권 심판... 반드시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이 3일 '더불어민주연합'을 당명으로 하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정식 당명으로 제안된 '더불어민주연합 당명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강령 및 당헌 제정의 건', '당대표 선출의 건' 안건이 처리됐다.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동대표 후보로 추천된 윤영덕 국회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12호인 백승아 전 교사가 추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공동대표 수락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대와 국민의 절절한 명령을 무겁고도 엄숙하게 받들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민생파탄 상황에서 일상의 행복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공동대표는 "검찰독재와 언론탄압,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증가, 국민을 외면한 채 무능과 독단으로 일관하는 국정운영, 해묵은 이념논쟁 등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뒷걸음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삶과 역사의 정의,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패악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그들 모두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도한 폭압에 맞서 위대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정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철폐 및 민주주의의 정치 회복 ▲노동권 보장, 생명존중, 불평등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내일이 더 밝게 복원 등을 제시했다.

백승아 공동대표도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몰상식의 국정을 목도했다"며 "오만과 독선, 불통의 폭주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공동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민주개혁진보연영 승리에 밀려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민생, 반민주, 반미래 정권에 대해 통합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시민사회 대표로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폭망,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퇴행을 막고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려면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퇴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우리의 사명감,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자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어떤 시기에 갈 것인가가 약간씩 다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같고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진보하는 나라임을, 전진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첫 출발점, 바로 더불어민주당연합 출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낸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울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athfinder@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 의원과 접촉하며 '세불리기'

총선 광주출마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일 광주광역시

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전날(2일)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3일로 예정했던 저의 광주출마 기자회견을 잠정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서 "저의 기자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하위 평가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 의원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3일 <메트로경

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판을 더 크게 만드려고 한다. 민주당의 부정 공천에 희생당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세력 규합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 어떻게 연합하고 세력을 합쳐 나갈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장 이낙연 공동대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진짜 민주당을 정체성으로 갖는 세력들

이 규합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는 '민주연합'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새당을 차린 새로운미래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한 곳에 규합하는 텐트가 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